

# 미국, 이란산 석유 판매금 송금 차단

## 재무부, 수입대금 이란 밖에서 지급토록 ... 국영방송도 제재대상 추가

미국 재무부는 2월6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 수입국가가 석유 대금을 이란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재로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석유 수입대금을 이란 밖에서만 지급하고 이란 정부가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란은 자금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자금을 이란으로 직접 송금해 핵무기 개발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는 못하게 된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이 계속해서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미국은 이란 정권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 이란 국영방송 IRIB와 예자톨라 자르가미 IRIB 사장도 정치범의 강요된 <자백>을 중계방송하고 언론 검열을 실시한 책임을 물어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한국·인디아 등 일부 국가들을 이란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고 이란산 석유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7>